

첫째날

10/27 화



판소리 '소리내려' by 임진택
18:30 / 느티나무홀



It Won't Be Long Now
by Center for 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충공)
20:00 / 느티나무홀

둘째날

10/28 수



'아버지, 리어왕' by 연극놀이터 씬
18:00 / 혁신광장 극장



노래의 꿈 by 노래패 꽃다지
19:00 / 느티나무홀



Lu-ting The Merman
by Theatre Horizon(충공)
20:00 / 느티나무홀

셋째날

10/29 목



가두극장 '하차' by 극단 함세상
18:00 / 혁신광장 극장



메가폰 슈프레히쿨 by 극단 도도
19:00 / 느티나무홀



The Whisper of the Wave
by Shinehouse Theatre(대만)
20:00 / 느티나무홀

넷째날

10/30 금



협상1948 by 아신아트컴퍼니
15:00, 18:00 / 극장동



시와 노래의 만남
by 자권파 효림스님
19:00 / 느티나무홀



Ocean's Blue Heart
by Theatre horizon 8x8(태국)
20:00 / 느티나무홀

마지막날

10/31 토



네 이름은 무엇이냐
by 2020연극전태일추진위원회
17:00 / 혁신광장 극장

“일어서는 아시아! 동아시아민중연극 주역들의 만남과 연대의 마당!”

동아시아민중연극제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젊은 연극인들이 노동·인권·생명·평화의 가치를 구현한 공연들을 선물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상황 하에 어렵게 개최되는 행사이지만, 동아시아민중연극제는 이 재난의 시절에 지치고 상처 입은 동시대인들의 삶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젊은 연극인들의 만남은 동시대 청년들이 처한 삶을 어루만질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물꼬를 트고, 침체된 공동체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입니다.

“일어서는 아시아! 동아시아민중연극 주역들의 만남과 연대의 마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전 예약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아시아민중연극제 현장의 모든 공연은 사전 예약제로 관람하게 됩니다.

사전예약방법

1 Youtube(유튜브)에서 '동아시아민중연극제'를 검색하거나, Facebook(페이스북)에서 '나무닭움직임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일정별 공연 소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연극제 현장 공연을 관람하시려면 전화로 사전예약합니다.

3 모든 공연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소개자료에 있는 유튜브 링크 (아시아 극장)로 접속하여 구독, 알람설정을 누르면 공연 당일에 알람을 받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 010-9926-7404

전태일 열사 50주기 맞이

동아시아 민중연극제

2020.10.27.~10.31.



첫째날

개막 길놀이 / 10월 27일 17:30

(사)터울림 / 나무닭움직임연구소 / 참가단체

(사)터울림은 1984년 풍물패 터울림으로 창립하여 풍물굿의 연구, 창작, 교육, 공연, 문화활동 등을 통해 풍물굿의 확산 및 보급에 힘써오고 있다. 터울림 풍물공연은 투박하게도 전개되지만 보는 사람들의 흥을 엮어내는 풍물굿의 정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날피복춤은 북을 메고 여럿이 함께 힘차게 추는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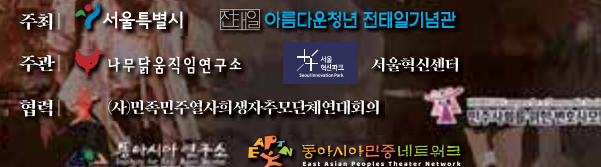


나무닭움직임연구소는 몸, 마음, 소리, 동시대 사회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탈 꼭두, 그림자 신화 등에 깃든 제의성에 기반한 연극을 위해 연구 및 창작하여 공연한다. 주로 거리 또는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다리(Stilts) 공연은 초현실의 존재들이 현실의 공간에 출현하여 인간과 함께하는 놀이를 만들어낸다.

개막공연 / 10월 27일 18:30

창작 판소리 '소리내려' / 임진택

임진택은 故정권진 명창을 사사하여 판소리에 입문 후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대와 소통하는 창작 판소리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판소리 명창이며 연극과 탈춤을 접목한 민중·민족적 연극 양식으로 '마당극'을 선보인 한국 현대 마당극의 창시자이다. 그의 작품 '소리내려'은 독재 정치를 비판하고 고단한 민중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이다.



10월 27일 20:00

It Wan't Be Long Now / Center for 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 (홍콩)

1940년대 일본군 막사에 수감된 영국 전쟁 포로의 경험을 소재로 한 작품. 고난과 고통, 강제 노동과 처벌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류의 생존 의지를 보여준다. 이 공연은 수용소의 삶을 무대로 가져와 굶주림, 의심과 절망을 극복하는 비이성적 낙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둘째날

10월 28일 18:00

‘아버지, 리어왕’ (한국-대만 합작) / 연극놀이터 웹



봉건적이며 유교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한 가족의 가장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수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특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예정’, ‘충성’, ‘배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전인 리어왕을 재해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영역에서 아버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10월 28일 19:00

노래의 꿈 / 노래패 꽃다지

창립 이후 28년간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해 온, 여전히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꽃다지는 민중가요의 틀에만 한정하여 평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가객이다. 민중가요의 종착점이 라 불리는 꽃다지는 꾸준한 활동 속에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담은 〈바위처럼〉, 〈단결투쟁가〉, 〈민들레처럼〉, 〈전화카드 한 장〉,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희망〉, 〈반격〉, 〈주문〉, 〈당부〉, 〈노래의 꿈〉, 〈이 길의 전부〉, 〈내가 왜?〉 등을 발표하여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10월 28일 20:00

Lu-ting the Merman / Theatre Horizon (홍콩)

고대 홍콩에 있는 신화적인 상인부족인 루팅스는 여러 부족과 제국들에 의해 압제당해왔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춤, 마스크, 라이브 음악 및 시를 포함하는 우화형식을 통해 홍콩의 현실을 성찰하는 감동적인 극으로, 국가와 개인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셋째날

10월 29일 18:00

가두극장 ‘하차’ / 극단 함세상

악극과 마당극의 절묘한 조합 가두극장 “하차”는 1930년대를 풍미했던 만요(漫謔)와 전통판소리, 현대적 풍자극 등 즉석연주와 함께 시작된다. 공연은 관객들과 함께 9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며 관객과 함께 놀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전통 탈춤판을 현대적으로 활용하여 관객과 함께 판을 열고 풀고 맺으며 가슴을 데우는 마당판이다. 양식적 몸짓과 재담으로 풍주된 극중 인물들은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 소년 하차꾼은 오늘날 알바 노동자의 모습으로, 일하는 보통사람들의 모습으로 답답한 현실에 질문을 던진다.



10월 29일 18:00

메가폰 슈프레히콜 / 극단 도도



슈프레히콜(Sprechchor)은 독일어 ‘Sprehen(말하다)’과 ‘Chor(합창)’의 합성어로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전파된 시위 형식의 전위연극이다. 간결한 시구, 합창, 안무의 콤비네이션으로 구성되는 슈프레히콜은 보통 여러 명의 시민/예술가들이 한 팀을 이뤄 거리나 공적 공간에 개입하여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현안을 예술적으로 다룬다.

10월 29일 20:00

The Whisper of the Wave / Shinehouse Theatre (대만)

파도. 파도의 속삭임은 최근의 COVID-19, 2011년의 일본 지진과 쓰나미와 핵재앙, 1999년의 대만 지진 등의 재난과 파괴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나아가 삶과 죽음 사이의 대화에 바탕을 둔 공연과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아이들의 움직임과 같은 독창적인 안무는 댄서들의 신체적 표현을 통해 대만의 민속이 지닌 정신적인 세계를 변형하고 재창조한다.



넷째날

10월 30일 15:00, 16:00

협상 1948 / 극단 아신아트컴퍼니



제주 4.3사건의 평화협상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 요란한 총성이 울리고 제주도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1948년 4월 28일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평화를 위한 제주주둔 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의 수만 명의 목숨을 건 평화협상이 시작된다!

10월 30일 19:00

시와 노래의 만남 / 자권과 효림스님

“젊은 청년으로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애환을 노래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지만 힘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을 보태고 그런 사람들의 곁에서 짐을 나눠지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노래로 대변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 자권



10월 30일 20:00

Ocean's Blue Heart / Theatre 8X8 (태국)



두 자연의 여신 이야기와 도시에서 노동자, 엔지니어, 사업가, 연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자연과 인간은 영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순결한 사랑으로서 그 영적인 만남이 완성됨을 보여준다. 대사 없이 탈과 움직임, 그림자 인형극, 노래가 결합된 공연으로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3개국 이 함께한 아시아 마스크 프로젝트로, 2017년 도쿄 스토어 하우스에서 성공적으로 공연된 작품이다.

마지막날

폐막공연 / 10월 31일 17:00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야’ / 2020연극전태일추진위원회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고자하는 사람들의 우정과 정성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한 청년 노동자가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 암울한 노동 현실에 맞서 분신으로 항거하여 변화를 꾀한 이야기를 음악 서사극으로 재구성했다. 전태일 열사의 삶은 사랑의 실천이 인간의 의무임을 보여준다. 탈, 인형을 이용해 초현실세계를 넘나드는 연극은 연령,성별, 지위를 넘어 모두에게 선물 같은 작품이다.

